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건명 : OECD 제52차 농정시장작업반(APM)회의 및 제64차 농업과 무역
합동작업반(JWPAT)회의 참석

2.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부연구위원, 문한필 부연구위원
농림수산물식품부 최수아 사무관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현지참석)

3. 출장일정

일 시	장소	내용	비고
11월 14일(일)	인천→파리	출발, 도착	1박 1일
11월 15일(월)	OECD Conference Centre	52차 APM 회의참석	2박 2일
11월 16일(화)	OECD Conference Centre	52차 APM 회의참석	3박 3일
11월 17일(수)	OECD Conference Centre	52차 APM 회의참석	4박 4일
11월 18일(목)	OECD Conference Centre	64차 JWPAT 회의참석	5박 5일
11월19일(금)~20 일(토), 13:30	파리→인천	귀국	5박 7일

4. OECD 회의 의제목록

□ 52차 농정시장작업반(APM) 회의

Item 번호	의제명	문서번호
Item 3	Proposal for the 2011 report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nd emerging economies	TAD/CA/APM/WP(2010)24
Item 4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the United States	TAD/CA/APM/WP(2009)22/REV3
Item 5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Turkey: Interim report	TAD/CA/APM/WP(2010)25
Item 6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reforms in the European Union: Draft report	TAD/CA/APM/WP(2010)26
Item 7	Long term trends in policy performance	TAD/CA/APM/WP(2010)19/REV1
Item 8	PSE improvements: Extending commodity coverage in the PSEs	TAD/CA/APM/WP/RD(2010)6
Item 9	Evolution of agricultural support in real terms in OECD and emerging economies	TAD/CA/APM/WP(2010)27
Item 10.a	Draft Agenda for the Conference on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on 22-23 November 2010	TAD/CA/APM/WP(2010)28
Item 10.b	Thematic reviews on risk management	TAD/CA/APM/WP(2010)15/REV1 TAD/CA/APM/WP(2010)16/REV1 TAD/CA/APM/WP(2010)17/REV1 TAD/CA/APM/WP(2010)29 TAD/CA/APM/WP(2010)30
Item 10.c	Aggregate model analysis of exogenous risk and price variability: interim report	TAD/CA/APM/WP(2010)31
Item 11	Agricultural Outlook updates	TAD/CA/APM/WP(2010)32
Item 12.a	Developments in commodity price volatility	TAD/CA/APM/WP(2010)33
Item 12.b	Wheat price volatility scenario analysis: A scoping paper	TAD/CA/APM/WP(2010)34
Item 12.c	Private financial sector investment in agriculture	TAD/CA/APM/WP(2010)35
Item 12.d	An assessment of 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s for commodity price stabilisation	TAD/CA/APM/WP(2010)36
Item 13	Proposal for implementation of a Food Chain Analysis Network	TAD/CA/APM/WP(2010)37
Item 14	Report of the sixth meeting of the OECD Network for Farm Level Analysis	TAd/CA/APM/WP/RD(2010)7
Item 15	The distribution of support and income in selected OECD countries: Draft report from the Network for Farm Level Analysis	TAD/CA/APM/WP(2010)38
Item 16	Economic importance of agri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TAD/CA/APM/WP(2010)39 TAD/CA/APM/WP(2010)40
Item 17	Agricultural policy choices in developing countries: A synthesis	TAD/CA/APM/WP(2010)41 TAD/CA/APM/WP(2010)42 TAD/CA/APM/WP(2010)43 TAD/CA/APM/WP(2010)44 TAD/CA/APM/WP(2010)45
Item 18	Green growth and agriculture	TAD/CA/APM/WP(2010)46

□ 64차 농업과 무역 합동작업반(JWPAT) 회의

Item 번호	의제명	문서번호
Item 3	Scoping on further work on NTMs	TAD/TC/CA/WP(2010)4
Item 4	Proposal for publication on NTM work	TAD/TC/CA/WP(2010)5
Item 5	Changing patterns of trade in processed products	TAD/TC/CA/WP(2010)3/REV1
Item 6	Workshop report: 'Long-term scenarios: Supporting robust policies for global agriculture and food'	TAD/TC/CA/WP/RD(2010)1
Item 7	To what extent do exchange rates and their volatility affect trade?	TAD/TC/WP(2010)21
Item 8	Treatment of agriculture in selected regional trade agreements	TAD/TC/CA/WP(2010)7

5. OECD 제52차 농정시장작업반(APM) 회의결과

□ 핵심요지

- “OECD국가와 신흥개도국의 실질 농업지지 변화”, “정책수행의 장기추세”, “미국 농업정책개혁평가”, “캐나다 PSE(생산자 지지 추정치) 대상품목 확대”, “농업분야 민간자본 투자” 등의 보고서를 논의하여 대부분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하기로 함
 - 다만, “정책수행의 장기추세”보고서는 새로운 지표안의 실효성·복잡성 등의 사유로 추가 서면검토를 거쳐 검토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실질 농업지지 변화” 보고서의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석결과(생산증가가 크고 지지는 제한적으로 감소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함. 서면으로 상세내용을 사무국에 제출한 후 검토·수정 과정을 거쳐기로 함.
- “2011년도 농업정책점검” 및 “2011년 농업전망” 보고서 구성안 제안사항을 검토한 결과, 서면절차를 거쳐 보완하기로 함
 - 사무국은 농식품 유통 전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소비자 요구 등을 분석하는 “식품체인 분석 네트워크”의 구성운영을 제안하였으며, 제1차 회의를

12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 내년도 각료이사회에 보고될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의 부록(annex)에 에너지 부분과 함께 포함될 예정인 “농업과 녹색성장”보고서 작성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소관 “농업환경공동작업반”에서 구체적인 논의 예정).
- 일부 회원국들은 농업부문 녹색성장 개념의 불명확성, 적절한 측정지표 선정 곤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 관찰 및 평가

- 수입국 공조모임 개최(11월 15일 13:00~15:00)
 - 스위스가 주최하고 스위스, 한국, 일본, 노르웨이, EC, EU 참석
 - 오는 12월 Global Forum 이후에 일본의 주최로, 내년 3월 APM회의 기간 동안 한국의 주최로 공조모임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 스위스의 발제로 Item3(2011년 OECD 농업정책점검 보고서), Item7(정책 수행의 장기추세), Item9(실질 농업지지 변화), Item17(개도국 농정선택), Item18(녹색성장) 등을 논의함.
 - 의제별로 Item3은 보고서에서 제안된 PSE 3가지 분류방식 대신 기존의 7가지 PSE 분류방식을 지지하기로 결정; Item7은 공개(declassification)를 연기하는 것을 제안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모임을 별도로 가질 것을 건의하기로 합의; Item9에 대해선 별도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정보제공용인 Item17에 대해 개도국에 정책제안을 하기에는 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견해임. 또한 개도국에 대해 농업이 가진 다양성(multifunctionality)으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정당성을 선진국처럼 부여하는 것은 FAO에서도 반대하는 내용임을 지적하고, 개도국이 가진 제한적인 재원을 가지고 산업발전(농업)만 우선시 할지 아니면 Coherence(산업, 농촌, 환경을 모두 함께 고민)를 강조할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Item18과 관련 해서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장’간의 개념상 구분 문제와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의 부록(annex)에 포함될

예정인 '농업과 녹색성장' 부분에 제시될 측정지표 설정 문제 등을 주로 토의하였음. (오후 전체회의의 속개로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함)

- 국가별 농업지지정책의 측정와 평가 시사점, 정책적 개입과 시장수단간의 효율성 문제 등 근본적인 쟁점을 두고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이 많은 회의였음.
 - 수입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책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금번의 경우에 “정책수행의 장기추세” 보고서 대응방향에 대해 사전에 “수입국 공조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이 회의대응에 도움이 되었음. 예상쟁점을 충실하게 사전에 준비하여 수입국 공조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질 농업지지 변화” 보고서에 대한 “농업위 대표단 코너”를 통한 수입공조국 등 의견제출내용, 공개여부 동의형성 등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입장을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 필요한 경우에 수입공조국 모임 국가와의 공동 대응이 요구됨.
- 금번 회의에서 녹색성장의 농업분야 개념설정 문제, 측정지표 설정문제 등이 이슈로 거론되었음. 농업부문 측정지표 반영 등의 쟁점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쟁점별 아국 입장 및 대응논리를 명확하게 정립한 후, 오는 농업환경공동작업반회의(2010.12.6~8)에서 대응할 필요.
- 2011년도 의장단 선출
 - 의장(덴마크)이 유임되고, 부의장국은 5개국으로 결정됨(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일본).

□ 의제별 주요내용

(Item3) 2011년 OECD 회원국 및 신흥개도국 농업정책점검 보고서 구성안
→ 승인(서면의견 수렴후 2011년 3월 APM에서 초안 제출)

- 사무국은 기존 결정사항에 따라 신흥개도국을 포함하고(다만, 인도는 미 포함 됨), 신흥개도국 포함에 따라 농업지지 측정수단인 PSE 분류방식을 현행 7개 구분에서 3개로 단순화하겠다는 내용을 제안함. 또한 보고서의 명칭으로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을 제안
- PSE 분류방식의 단순화에 대해 EC, 노르웨이, 프랑스, 일본 등은 구분상의 불명확성(least coupled와 decoupled 구분 등에서 사실왜곡 요인)과 용어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면, 미국은 단순화할 경우의 향후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 또한, 인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EC와 독일 등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네덜란드는 국가별 보고서 주요항목에 “식품안전, 농업환경정책”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국가별 주요 발언내용
 - EC: 기존의 7가지 PSE 분류항목을 세 가지로 단순화하였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많음. least coupled는 decoupled를 포함할 수 있어서 사무국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화가 아니라 사실을 왜곡할 수 있게됨. 따라서 least coupled와 decoupled를 구분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구. 특히 ③ Least coupled forms of support(E+F)는 비연계소득지지(decoupled income support)를 포함하고 있는데, EC는 비연계보조가 최소연계(least coupled)라는 명칭으로 명명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 3번째 항목의 이름을 ‘decoupled forms of support’로 변경해야만 함. 또한 ① Most coupled forms of support는 <그림1>의 주에서 자발적인 제약(voluntary constraints)을 제외한 가변생산요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불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6page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으며, Most coupled (최고연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약의 자의성의 유무를 떠나 제약 자체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또한 무역수지 계산시 WTO처럼 수산(fish)을 빼고 농산물만 따로 고려하는 것을 제안함.
 - 미국: ② Partially coupled 와 ① Most coupled forms of support 구분

기준이나 용어선택(terminology)이 애매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음(not mutually exclusive). 새로운 분류방식을 별도의 Chapter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될 것인지. 만약 계속 된다면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되어 관리되는 것인지 의문을 표시.

- 노르웨이: 오해의 여지가 작은 기존 PSE 분류방식 선호. 'distorting'이라는 용어는 생산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선행된 다음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류항목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함.
 - 캐나다 : OECD가 보고서에 제안한 세 가지 분류방식보다 특정 투입재, 생산물 연계 직불과 이외의 것처럼 두 항목으로만 분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임(coupled vs decoupled로 분류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음). <그림2>에서 PSE 외에 TES를 추가 제시하는 것은 중복된 정보제공이므로 불필요함. <표3>의 생태적 직접지불(Ecological payment)을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기에는 국가마다 해당보조의 사용(정도) 여부가 다를 수 있고 <표2>와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적당하지 않음.
 - 프랑스: 기존의 PSE 7개 항목 구분 선호, <표1>과 <표2>가 일관되지 못함. 불변가격(constant price)을 이용한 PSE 계산을 제안.
 - 네덜란드: 국별 보고서(Annex 1)에 식품안전(Food security)과 농업환경 정책(Agri- environmental policy)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 호주: 국가별 농업현황에 농가수(number of farms) 포함하는 것에 반대. 호주는 농가수가 상대적으로 작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규모 등의 특징)이 없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일본: 용어의 민감성, WTO와의 일치 등의 측면에서 PSE 분류에 대한 EC의 견해에 전반적으로 공감. 기존의 PSE 7개 구분방식을 선호함. 네덜란드의 국별 보고서에 식량안보 항목의 추가 제안을 지지함.
- 사무국은 M&E 보고서에 식량안보 내용을 담는 방법을 고려하기로 함. 또한 <그림1>은 3개의 구분방식(독자들의 이해 편리 목적)으로 가되 회원국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명칭을 바꾸기로 함. 별도로 의제 토의 다음

날 캐나다의 제안대로 PSE를 2개 항목으로 구분한 그림을 제시하였으나 회원국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결과 PSE를 기존의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됨. 물론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서면의견을 받기로 함.

- 사무국은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토대로 서면승인절차를 진행하고, 다음 회의(2011년 3월)에 초안을 보고하겠으며, 인도정부에 참여협조요청을 계속하겠다고 답변함.
- PSE 분류방식 보완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대표단코너를 통해 확인 필요

(Item4) 미국 농정개혁평가 보고서

→ 공개 승인(전기 회의에 이어 재차 논의됨)

- 낙농보조 사유 및 급식프로그램 제한사항 등에 대한 추가설명 요구(프랑스), 미국 원산지표시제(COOL)의 일부 표현 수정요구(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해 의견이 제시됨.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개하기로 결정됨.
- 프랑스 : 낙농보조, 국가급식프로그램 관련 추가 설명 필요 발언, 급식관련 제한(요구)사항(낙농농가 보조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됨), 낙농보조의 이유 등을 그 내용으로 지적함.
- 멕시코, 캐나다: 두 나라는 COOL에서 WTO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지 COOL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 관련된 문구 수정을 요구(para439). 미국은 이 문구의 수정보다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용하였음.

(Item5) 터키 농정개혁평가 보고서(Interim report)

→ 승인(서면의견 수렴후 2011년 3월 APM에서 초안 제출)

- 한국, 캐나다: 최근의 농정의 변화(직접지불폐지, 2009)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적인 특성(전반적인 경제, 농업분야)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함을 지적. 향후 작성될 6장의 '정책평가 및 권고'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Item6) EU 농정개혁평가 보고서(Draft report)

→ 승인(서면의견 수렴후 2011년 3월 APM에서 수정안 제출)

○ 국가별 주요 발언내용

- 한국: 단일단가 직불이 소득재분배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이 지나치게 강조된 점(para9)을 지적하고 관련문구의 삭제를 제안. Agenda2000에 대한 Shannon index 설명을 '생산 비연계는 전문화를 증가시킴'에서 '생산연계는 전문화를 감소시킴'으로 바꿀 것(para167)을 제안함.
- 캐나다: decoupling(진행중)와 decoupled(완료)의 구별된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문의함. 자급률이 EU의 주요한 정책목표인 것처럼 서술된 점을 지적.
- 미국,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CAP와 연계하여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보고서 내용이 품목 중에서 낙농과 설탕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음을 지적.
- EC,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은 'Capitalization of land' 문제를 언급함. 토지에 대한 보조가 농지여부 불문하고 지급될 경우 토지소유주, 농민, 임대농민 등에 대한 정책효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지적(unintended transfer vs intended transfer 구분 필요).
- 스페인: 보험체계, 위험관리 부분의 내용 보완 요구
- 아일랜드: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소득지지 프로그램의 정책목표로 다루어져야 할 지표(targeting indicator)에 대한 내용보완을 요구
- 컨설팅보고서를 본보고서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캐나다와 EC, 그리고 사무국의 이견이 두드러짐. 캐나다는 컨설팅연구를 수행하여 그 내용을 본보고서에 포함하고 이를 재인용하는 것은 정책효과 분석에 임의적인 가정이나 의도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함을 지적하며 또한 다른 국가의 농정평가보고서와 다른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에 우려를 표명함. 반면에 사무국과 EC는 이러한 보고서의 구성은 기존의 미국, 한국, 일본농정평가 보고서 등에서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한 관련연

구를 인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임.

(Item7) 정책수행의 장기추세

→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 공개가 어렵다는 결론이 날 경우 2011년 3월 APM에서 수정안 제출

- 국가별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PSE 이외에 새로운 지표들을 적용한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로서 전기 회의에 이어 재논의 됨.
 - 새로운 지표를 적용한 결과, 정책 효율성에서 EU는 높고, 한국, 일본, 미국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 EC는 정책수단들을 새로운 지표로 환산·평가하는 세부방법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서 공개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상당한 문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 복잡한 이슈이므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검토하자는 입장을 제시함.
- 일본도 새로 실험적으로 시도되는 보조측정도구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그 설명도 아직 부족함(개념의 명확화 필요)을 이유로 공개를 연기하고 전문가모임에서 별도로 보고서 내용을 토의할 것을 제안함.
- 이에 대해 사무국은 국가간 비교가 쉽다는 새로운 지표의 특징을 설명하고, 보고서 내용은 신지표를 적용한 측정한 결과라는 점 등을 강조함.
 - 우선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여부를 검토하고, 논란이 지속되면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

(Item8) 캐나다의 PSE 계산 대상품목 확대

→ 승인(2011년부터 적용 예정)

- 캐나다의 MPS 대상품목을 현재 10개에서 16개로 확대하는 제안이며, 그

결과에 따라 MPS 산출치가 약 6% 감소하게 됨. 이에 대해 EC, 프랑스, 노르웨이 등은 대상품목의 확대·축소 여부에 따라 PSE 산출치가 변경되는 산출방식상의 민감성 및 약점을 강조함.

- 사무국은 MPS 대상품목을 약 70% 이상 반영하는 것이 기준이며 수치의 정확성을 조정한 결과라는 점을 설명함. 캐나다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자국 PSE 지표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증대되었다고 평하고, MPS 변화와 관련하여 MPS가 6% 감소하더라도 MPS가 PSE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MPS 6% 감소는 전체 PSE 대비 1% 내외의 변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연설명함.
-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54%로 일본, 멕시코, 터키와 더불어 70%에 못 미침, MPS 품목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임(후보품목의 선정을 위한 MPS 민감성 분석 등 시행), 일본과 터키의 MPS 품목에 비추어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액 비중에 비추어볼 때 사과, 배, 딸기 등이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이들 품목의 국제-국내가격 차이가 큰 것이 문제임. EC는 과일과 야채가 국가별로 동질적이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PSE 계산에 빠져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캐나다의 상황은 어떤지 질문하여 향후 EC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과일부분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 있음.

(Item9) OECD 회원국 및 신흥개도국 실질 농업지지 변화 보고서

→ 서면의견 수렴 후 사무국 책임 하에 공개(TAD Working paper 시리즈 형태로 발간 예정)

- 명목 화폐기준으로 산출되는 PSE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GDP디플레이터와 구매력평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 PSE”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임(컨설턴트 작성 및 발표)
- 대부분 국가에서 “실질 PSE”가 대폭 감소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감소율이 낮았음. 터키와 멕시코는 오히려 증가함.

- 한국은 “농산물 생산량 증가가 컸고 실질 PSE 감소폭이 적다”는 분석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GDP디플레이터 및 환율의 적용시점에 따라 시기별로 변동폭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함.
- 멕시코도 환율을 산출하는 기준시점에 따라 변동폭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멕시코의 경우 기준년도의 물가폭등과 경제불안정을 감안하여 기준년도의 변경가능성을 문의함
- 일본은 생산량 증가와 농업지지수준의 증가를 연계시키는 내용에 이견을 제시하고 수정을 요청함.
- 노르웨이 등은 본 보고서의 농정점검 및 평가에 활용여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 미국과 영국은 불어버전의 보고서만 먼저 공개되고, 영어버전의 늦은 업데이트로 인해 검토시간이 불충분하였던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
- 컨설턴트(Mr.Jean-Pierre Butault, 프랑스 농업연구소)는 OECD 방법론에 근거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기준년도 선택에 따라 산출치가 변화하나 변화경향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멕시코와 한국에 대해서는 산출치를 재검토(check)하겠다고 답변함.
 - 현재 서면의견은 사무국에 제출(11월 29일까지)되었으며 사무국은 재검토 중임을 통지하였음. 추후 컨설턴트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나라 관련 분석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함. 사무국은 회원국의 서면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무역농업국 작업문서(TAD Working paper)로 공개할 예정임.(제출된 서면의견은 부록 참조)

(Item10) 농업 리스크 관리

→ 5개국 사례분석 보고서를 논의하여 공개를 승인하였으며, 관련 워크샵(2010.11.22~23) 의제가 소개됨.

○ **Item10a:** OECD 워크샵(2010.11.22~23) - 농업에서의 위험 관리(효과적인 정책)

- 2009년 2월 scoping paper에서 농업위험관리 프로젝트를 3개(국가별 사례연구, 농가단위 분석, aggregate model)로 구분하여 진행할 것을 정함. 이번 회의내용을 토대로 내년 3월에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를 제출할 계획임.

○ **Item10b:** 사례연구로서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캐나다, 네덜란드의 위험관리 정책수단들이 분석됨.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의 사례보고서는 5월 APM 회의 것의 수정본임.

- 호주, 뉴질랜드 보고서의 경우 해당국 대표의 감사 발언 이후 사무국은 예정대로 공개를 결정함.
- 스페인 보고서에 대해 프랑스, EC, 덴마크가 발언함. 프랑스는 잘된 연구 내용에 비해 정책제안 부분이 너무 일반적이라고 발언. 덴마크는 가축다중위험보험(multi-risk insurance)에 대해 과대보상의 가능성은 없는지 밝혀줄 것을 주문함(내용에 따르면 살처분가축에 대한 보험금뿐만 아니라 정부와 EU가 함께 재정지원하는 보상지급이 이루어짐, para49). 이에 대해 사무국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상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지만 항상 과대보상의 위험은 존재한다고 답변.
- 캐나다 보고서는 캐나다의 제안(검토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공식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움)에 따라 공개를 연기함(2011년 1월까지 서면의견 수렴 후 공개여부 결정 통보).
- 네덜란드 보고서도 EC가 제기한 내용(para 55, 57, 84)에 대해 충분한 서면의견 교환을 갖기 위해 공개를 연기함.

○ **Item10c:** 외생적 위험과 가격 변동성의 총량모형 분석

- 중간보고서인 이 연구는 가격변동성의 요인을 Aglink모형을 이용한 시물

레이션을 통해 찾고자 시도함.

- 일본과 프랑스는 이 연구가 농산물 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변동성을 고려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설명적인(descriptive) 연구이고 결과해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 일본은 Aglink는 균형을 가정하기 때문에 모든 가격 변동성을 시뮬레이션 하기 어렵다는 점을 프랑스는 동태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은 정태적이고 내생적(endogenous) 위험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함.
- 사무국은 11월 29일까지 서면의견을 받아 내년 3월 APM 회의에서 수정본을 제출하기로 함.

(Item11) 농업전망 업데이트

→ 회원국들은 2011년 농업전망보고서의 구성과 중점방향 등을 지지함.

- 전반적으로 모든 회원국들은 2011년 OECD-FAO 농업전망보고서 준비와 관련된 향후 활동계획에 동의하고 있음.
- 회원국들은 시장 불안정성(market volatility)에 초점을 맞춘 2011년 농업전망보고서의 구성을 지지하며, 수산부문이 별도의 장으로 포함되는 것(FAO 초안작성, OECD 수산위원회 검토)과 관련하여 보완적인 의견을 제시함.
- 미국은 가격변동을 시장적 요인으로 인한 변동과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다루어야 함을 지적하고, 수산(fishery)부문 모형과 Aglink-Cosimo 간의 상호연계, 피드백 설정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의견을 피력함(각 부문간 수요 공급의 적절한 고려 필요).
- 스위스는 거시경제에 대한 가정과 추가되는 수산모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농업전망보고서 작업 및 모형개발에 자국 정부 연구기관의 적극 적인 참여와 협력 의지를 피력함. 사무국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국에 감사를 표시하고, 연계강화전략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중국의 협조(통계 및 모형의 대표성 개선)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 사무국은 2011년 5월 16~18일에 Braunschweig에서 개최될 예정인 농업전문가회의에서 시장변동성 이슈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독일에 제안함. 독일은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Item12) 농산물 시장의 구조변화

→ 농산물 시장의 구조변화와 관련한 4개의 연구제안서(컨설턴트 보고서)가 검토되었으며, 서면절차를 거쳐 내년 3월 APM 회의에서 초안이 제출(Item12b, Item12c)되거나 TAD Working paper로 발간(Item12a, Item12d)될 예정임.

- **Item12a: '농산물 가격변동성의 변화'** 컨설턴트 보고서 →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TAD Working paper)
 - 2006~2008년 기간 중의 국제농산물 가격변동성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로서, 가격변동성이 1990년대보다 크지만 1970년대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주된 내용. 많은 국가들이 분석기간과 기간의 길이에 따라 보고서의 결론(2006-2010년 가격변동성은 1990년대보다는 크지만 1970년대보다는 크지 않음)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품목별 상이한 Causality test 결과에 대해 의문 제기(이견 제시).
 - 분석방법론 및 결과해석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분석기간의 설정문제,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연계문제, 투입재 가격간의 상관관계, 시장개방 등 시장상황의 변화 등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스페인: 투입재(에너지) 가격들이 서로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이 경우 Multiple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프랑스: 국제가격과 국내가격(domestic, local price) 연계되어 있음. 이러한 연계를 감안할 경우 분석결과가 상당히 바뀔 수 있음. 선행연구에 사용된 다른 지표를 이용한 분석 요구. 명목가격보다는 실질가격을 사용한 분석 제안

- 미국: 가격변동성 분석에서 가격의 변화와 마켓 펀더멘탈의 변화를 구분해야 함. 두 분석기간의 비교에서는 최근기간이 이전기간보다 시장개방이 더욱 진전되었음을 고려해야 함. 이러한 시장개방의 진전이 가격변동성의 증가(또는 감소)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려 필요함. 공산품의 가격변동성이 농산품의 가격변동성보다 더 클 수 있음.
- EC: 마켓 펀더멘탈과 정책효과 고려해야함.
- 영국: 최근 비슷한 주제의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음. 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농산품의 경우 70년대의 가격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곡물(grain), 특히 쌀의 가격변동이 가장 컸으며, 이는 제한된 국제시장의 통합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Item12b: '밀 가격변동성 시나리오 분석' 연구계획서 제안**

- 3개 시나리오(소득 상승에 따른 수요증가, 재고변화, 국제협약에 따른 공동재고관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밀의 가격변동성을 분석하려는 연구제안서임. 시나리오 2(재고 변화)에 대해서는 중국 재고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데 중국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는 문제를(스위스, 미국 등), 시나리오 3(국제협약에 의한 공동재고관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됨(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 제시된 의견 및 서면의견을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조정한(adjust) 후, 차기 회의에 보고서 초안을 보고할 예정임.

○ **Item12c: '농업분야 민간자본 투자' → 보완 후, 차기회의에 발표**

- 지난 5월 APM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사무국과 컨설턴트는 사례연구를하기로 정함. 이번에는 9개 투자사례를 분석한 연구경과와 예측되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한국은 동남아시아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 9개 투자사례가 선정된 기준(biased selection)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며(이에 대해 독일이 지지), 중국과 중동자본이 활동하는 동남아시아가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이에 대해 프랑스와 일본 지지)를 지적함. 또한 분석방법으로 펀드메니저의 설문에만 의지하는 것에 대한 자료의 제한성

을 제기함.

-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소농과 농촌에 대한 민간투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프랑스는 선택왜곡(selection bias) 문제를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드메니저 설문항목에 대해 제기(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물어봄).
- 사무국은 민간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애로사항을 언급하면서, 동남아시아 사례를 포함하는 의견 및 회원국의 지적사항들을 컨설팅 기관에 전달하겠으며, 차기 회의에서 결과물을 토론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 **Item12d: '품목가격안정을 위한 국제상품협약 평가' →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TAD Working paper)**

- 국가별 또는 국제적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이 적정재고를 관리하는 방식(buffer stock management)이 가격변동성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시장수단(선물·옵션거래 등)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분석보고서임.
- 미국·캐나다·호주 등은 연구결과(call-option을 포함한 시장을 통한 가격안정 추구)를 지지하였으나,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은 “식량안보가 선진국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표현, 금융시장의 리스크 등 시장수단의 한계 등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함. 구체적으로, 일본은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비상시기에 call-option이 실제로 행사되는 것(필요시 농산물이 실제로 조달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 아울러 para93에서 'Food security is not a problem in the major developed economies'의 삭제에 대해 동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요구함. 한국도 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함.
- 컨설턴트(이탈리아 Trento 대학 Mr. Christopher Gilbert)는 식량안보에 대한 표현을 아시아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adjust)하겠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관련 문안(para93)을 수정하겠다고 답변함. 또한 일본과 한국이 제기한 식량안보와 call-option 방식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이 국가에 따라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not a negligent problem)고 발언함.

- 연구결과에 대한 국가별 반응을 보면, 수출국들은 전통적으로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 적정 공공재고 특히 주곡 부분을 중시하는 한국을 포함한 수입국의 입장에서 '공공재고관리가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민간부문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연구에서 부각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Call-option은 식량안보를 위한 보완적인 정책이지 재고관리에 대한 대체적인 수단은 아님. 기상이변 등으로 국지적이 아닌 범국가적인 식량부족과 가격급등이 있는 경우 설사 자금이 있고 call-option 등으로 물건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실제 요구되는 물량을 공급받는 것이 항상 쉬울 것인지 의문임. 민간저장도 공공저장만큼은 아니라도 저장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민간은 비용을 고려할 때 공공보다 덜 중장기적으로 저장하는 유인이 있다는 생각임(정호근 박사).

(Item13) 식품 체인 분석을 위한 제안

→ 1차 네트워크 설계회의(2010.12.13.) 이후 구체적인 작업계획이 내년 3월 APM 회의에서 제시될 예정

- 사무국은 농식품 유통 전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소비자 요구 등을 분석하는 “식품체인 분석 네트워크”의 구성운영을 제안하고, 제1차 회의를 12월 13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함.
- 호주,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EC, 미국 등이 참여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생물다양성, 소비자 관심사, 정책수단, 인증제, 투명성 등 다양한 관심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1차 회의를 거쳐 작업계획이 차기 회의에 보고될 예정임.
- 이들 국가들은 선정된 두 의제(1.식품체인의 효율성과 투명성, 2. 식품체인과 소비자)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먼저 두 의제에서 보다 생산적이며 참여국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로 연구범위를 좁혀서 연

구를 시작하고, 향후 이 네트워크에서 다루는 연구주제를 넓혀가는 방식을 제안함.

- 독일과 미국 등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적(유럽)으로나 조직의 성격 측면에서 다소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함. 개도국, NGO, 생산자조직, 협동조합 등 식품체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사무국이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
- 아르헨티나는 1주제의 경우 식품시장 외에도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투기(financial speculation)적 요소에 대한 고려를, 2주제에서는 소비자의 식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교역에서의 문제(WTO의 SPS 규정과 같은 NTM)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 제시.
- 네덜란드의 경우 품목별로 1주제에서는 낙동과 육류(돼지고기)를 중심으로 2주제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다루는 방안을 제안함.

(Item14) 농가단위 분석을 위한 OECD 네트워크 6차모임 보고

→ 6차모임 경과보고 이후 향후 7차모임(2011년 4월) 예고, 별도 논의 없음.

(Item15) OECD 국가들의 보조금과 소득 분포

→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

- 이 보고서는 농가단위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2007년에 착수한 시범과제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으며, 13개 회원국과 4개 EU aggregation의 농가단위 통계를 기초로 작성됨. 이 보고서를 통해 1) 농가별 특성에 따른 보조금의 분포와 2) 보조금이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음.
- 회원국들은 일부 데이터에 대한 수정정보완을 요구하였으며, 국가간 통계비교가능성문제, 비영농소득 반영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EC는 이 보고서가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user friendly) 제작되기를 주문함.
- 덴마크는 국가별 통계의 차이(출처, 조사 방법/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기를 요구하였으며, 보고서에 자료를 제공한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통계의 오류나 자국관련 표현의 수정을 요구함(주로 서면질의를 통합).

- 특별한 이견 없이 모든 회원국들이 이 보고서의 공표(declassification)에 동의함.

(Item16) 지속가능발전과 빈곤경감을 위한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

→ 서면의견을 반영하여 문안수정 후, 글로벌 농업포럼(2010.11.29~30)에서 주제발표 예정, 차기 회의에 최종보고서 형태로 제출.

- 인도네시아, 가나에 대한 사례연구내용이 발표되었으며, 많은 회원국들은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서면의견을 제출함.
- 프랑스는 인도네시아 사례연구의 결론도출 및 모델링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으며(세부적인 기술적 문제점들은 서면의견으로 제출), 가나사례 연구에서는 빈곤경감의 중요한 요인인 이전수입(주로 remittances)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음을 지적함.
- 네덜란드와 호주는 인도네시아 사례연구와 내년에 작성되는 농정평가 보고서 작업에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함.
- EC는 보고서의 제목과 달리, 전체 내용에 환경이나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함.
- 사무국은 서면의견을 반영하여 문안을 수정한 후, Global Forum on Agriculture(2010.11.29~30 예정)에서 발표하고 차기 회의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Item17) 개발도상국의 농업정책 선택

→ 글로벌 농업포럼(2010.11.29~30)에서 주제발표 이후, 차기 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임.

- 토론용(Discussion) 목적으로 제출된 종합보고서와 정보제공 목적으로 제시된 4가지의 배경보고서들은 글로벌 농업포럼(2010.11.29~30)에서 논

의될 예정이다.

- 개발도상국 대상의 정책평가모델(DEVPPEM)을 통해 초기 분석한 결과로서, 농업의 GDP 및 고용인구 변화패턴을 6개 국가별로 분석하였으며, 생산가격지지(MPS)보다는 보조금(input subsidy)이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시사점임.
- 프랑스는 보고서가 소득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생산증가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각국의 발전단계나 상황에 따라 구조적 변화가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네덜란드로 개도국의 경우에 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정책평가모델(DECPEM) 자체의 적합성 문제에 대해 의문을 표시함.

(Item18) 녹색성장과 농업

- 정보제공(소관 작업반 : 농업환경공동작업반), 사무국은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의 부록(annex)에 포함될 "농업과 녹색성장" 부분에 대한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을 수렴한 후 농업환경공동작업반에 전달.
- 사무국은 내년도 각료이사회에 보고될 "녹색성장전략 종합보고서"의 부록(annex)에 에너지 부문과 함께 포함될 예정인 "농업과 녹색성장" 보고서 작성 진행상황에 대해 정보제공차원에서 보고함.
- 토지·물(water) 등 자원의 희소성, 기후변화 등이 주된 이슈임. 정책으로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기술발전, 농업관리방식 개선 등이 포함되며, 측정지표(indicator)도 검토되고 있음.
- 녹색성장의 농업분야 개념설정 문제, 측정지표 설정문제 등에 대해 일부 회원국들의 의견이 제시됨.
 - 프랑스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장간의 개념상 구분문제가 불명확하며, PSE가 적절한 측정수단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 일

본도 녹색성장의 진전에 대한 측정문제에 관심을 제기하면서 종합보고서 부록에 지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노르웨이도 측정하는 방법, 측정하는 이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아르헨티나는 OECD 외에 세계적으로 합의된 “녹색성장” 개념이 없으며 견고한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브라질은 농업 녹색성장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중요하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하므로 시장자유화 측면에서 동 사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반면, EC는 농산품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녹색성장이 농업에서 매우 필요한 요소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호주는 이노베이션이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을 제시
- 사무국은 소관 작업반인 “농업환경공동작업반”에서 상세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부록에 포함되므로 지표측면에서 종합보고서 본문보다는 보다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부록에 포함될 보고서의 초점, 범위, 구조에 대한 서면의견을 11월 24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농업부문 측정지표 반영 등의 쟁점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쟁점별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응논리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있음.

6. OECD 제64차 농업과 무역 합동작업반(JWPAT) 회의결과

□ 핵심요지

- 농식품 분야 비관세조치 추가사례연구를 위한 작업계획을 논의하였으나, 분석사례 선정에 이견이 있었음. 대상 사례선정 및 연구범위에 대해 서면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로 함.
- 약 50여개 지역무역협정을 대상으로 농산품 관련협정을 분석한 보고서, 가공농산물 무역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보고서가 각각 승인되었으며, 서면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공개하기로 함.

□ 관찰 및 평가

- 비관세조치 추가사례연구의 분석대상사례 선정에 대해 전기 회의에 이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
 - 3주 이내에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제안된 3개 사례(NAFTA, EuroMed, Mercosur)선정에 대한 지지여부, 연구계획서의 분석방법, 대상품목 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한편, “농업위 대표단 코너” 등을 통해 추후 동향을 파악할 필요 있음.
- 지역무역협정을 대상으로 농산품 관련협정을 분석한 보고서와 비관세조치 분야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과 논의방향을 향후 지역무역협정 추진시 참고할 필요 있음.
- 한편, 2011년도 의장단으로 의장 Mr. Jorge Rueda(멕시코) 외에 3인의 부의장(Mr. Darryl Brehm(미국), Mr. Sharief Mohamed(네덜란드), Ms. Katharina Johansson(스웨덴))이 선출됨.

□ 의제별 주요내용

(Item3) 향후 비관세조치(NTM) 작업을 위한 제안

→ 회원국의 서면의견 수렴(3주) 후 사무국은 12월 25일 전까지 연구계획서 수정안을 공개한 다음,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delegates' corner)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사무국은 기존에 분석된 2개 사례 외에 추가로 3개 지역무역협정(EU 공동시장, NAFTA, TTMRA)을 대상으로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관련규정, 규제평가절차, 분쟁해결구조 등을 분석하되, 분쟁이 많은 육류제품을 중점대상으로 하겠다고 연구계획을 제안
- 그러나, 사례로 제안된 관계국가에서는 해당사례가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분석내용에 있어서도 절차나 구조 보다는 개별 품목에 대한 사례분석을 선호하는 의견을 제시함.
- EC와 프랑스 등 EU권 회원국들과 호주는 기존의 개별 품목(case study)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더 선호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에 제안된 세 가지 RTA(EU 공동시장, NAFTA, TTMRA)에서 SPS 관련 NTM 조치들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협정문, 협상절차, 분쟁해결 메카니즘 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Item 8에서 이미 비슷한 분석을 행하고 있음을 지적). 즉 시장통합수준이 현저하게 서로 다른 RTA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의미(정책적 함의)있고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특히 프랑스는 다이옥신과 관련된 중국의 육류 수입제한, BSE 질병 등과 같은 기존의 비용편익분석(case study)의 효용성을 주장하였음.
- 호주 또한 TTMRA는 제조업에 중심을 둔 협정으로 농업관련 SPS 조항의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뉴질랜드 또한 자국 관계부처(농림부)의 예산제약으로 TTMRA 관련 연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였음.
- 미국 또한 NAFTA에서 원산지표시제(COOL)와 같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민감한 품목인 육류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을 함.

- 독일, 브라질 등은 시장통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EU 공동시장보다는 EU와 Non-EU간의 지역협정(예: EURO-MED)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에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회원국의 서면의견을 받아(12월 3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연구계획서(scoping paper)를 작성하고(12월 25일 전까지 Delegates' Corner & OLIS), 각 회원국은 이후 3주 이내에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포함한 코멘트를 사무국에 제시하는 절차를 거쳐 이 연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함.

- 1)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분석방법의 승인 또는 새로운 분석방법의 제안.
- 2) 새로운 분석대상 RTA(NAFTA, EuroMed, Mercosur)에 대한 승인 및 추가(또는 대체) 분석대상 RTA 제안
- 3) 새롭게 제안된 RTA에서 SPS 관련 조항을 분석할 특정 농산물 품목(sector) 제안 (모든 농산물 품목에 대한 분석보다는 특정 품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함)

(Item4) NTM 작업결과 발간을 위한 제안

→ 회원국들은 이 작업결과를 발간하는 것에 동의함. 일부 제출된 서면의견을 검토·반영한 최종보고서(안)을 발간 전에 Delegates' Corner를 통해 제시할 예정임.

Item5) 가공농산물 무역의 변화양상 보고서

→ 공개 승인(11월 말까지 서면의견 수렴후 최종보고서(안)을 10일 이내에 Delegates' Corner를 통해 제시할 예정임)

○ 사무국은 가공농산물 무역의 확대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들의 특징, 무역 변화양상 등에 대해 55개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회원국들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

며, 관세영향에 대한 검토추가(브라질), 일부 표현의 수정(프랑스, 서면으로 제출)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사무국은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고 2주간의 서면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답변.

(Item6) 농식품 분야 장기 시나리오분석에 대한 워크숍 보고서

→ 회원국들은 워크숍 이후 추가연구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인식함.

- 사무국은 장기 시나리오간에 다양성이 많았으며, 각 시나리오별 가정에 대한 투명성, 데이터베이스의 조화(harmonization) 등이 추후 필요하지만, 시나리오별로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자간의 대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워크숍 결과를 보고함.
- 회원국들은 장기 시나리오분석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들은 매우 다른 분석 방법 및 가정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기 시나리오 분석결과들에 대한 상세하고 일관된 비교를 위해서, 분석결과의 차이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 많은 회원국들이 사무국이 워크숍에 대한 정보를 Delegates' Corner에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으며 사무국은 추후 비슷한 행사시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부분을 시정하기로 함. 또한 일부 회원국은 시나리오 분석과 관련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설정되지 못한 점을 지적함.

(Item7) 환율과 환율변동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무역위원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 정보제공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환율 수준의 무역에 대한 영향은 수입보다는 수출에, 공산품보다는 농산품 교역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2) 환율변동성의 무역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뚜렷한 경향을 보

이고 있지 않음(ambiguous).

- 사무국은 이 연구는 칠레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분석범위를 확장한 단계로 나아갈 계획이며,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은 새로운 연구결과에 포함될 예정임을 밝힘. 확장·개정된 보고서는 무역위원회에서 발표된 이후 농업과 무역 합동작업반에 제출될 예정임.

(Item8) 지역무역협정의 농산품 관련협정 분석보고서

→ 서면절차를 거쳐 공개(IADB가 공동저자이며 TAD Working Paper로 발간 예정)

- 사무국은 약 50여개 지역무역협정의 농산품 관련협정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무역자유화 측면에서 관세분야는 진전이 크나, 비관세조치 분야는 진전이 크지 않은 편이라는 것이 핵심내용임.
- EC는 이 보고서에서 TRQs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점을, 프랑스는 실질적인 국내보조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점을 지적함. 무관세라인의 비중을 이용한 시장접근확대 여부만이 강조되어 RTA의 성과를 확대해석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함. 또한 프랑스는 '수출보조'의 정의가 보다 분명해야 함을 지적함.
- 스페인은 분석대상으로 선택된 50여개의 RTA의 대표성(지리적 편향, 개방정도에 있어서의 편향)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가 실제 무역패턴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설탕과 담배의 경우 분석결과는 개방정도가 낮은 품목들 중의 하나로 나타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 미국 또한 분석대상에 아시아 국가들간에 체결된 RTA(Intra Asian agreement)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들 협정이 농업분야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국내시장에 대한 보호정도가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 분석은 상당히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저자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RTA를 분석 대상으로 추가하기는 어렵고, 이 기초연구가 다음 단계(RTA가 무역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로 진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많은 회원국들은 이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정치한 통계와 계량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RTA가 무역과 소득(또는 welfare)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통계와 분석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기를 요구함(이러한 분석이 이 보고서에 부분적으로나마 포함되기를 원하지만 저자는 인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 사무국은 칠레(18개 RTA 체결), 멕시코 등 특정국가들의 RTAs를 사례(대상)로 실제적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함. 지리적 대표성에 대해 이번 보고서는 기술적(descriptive), 분석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후속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함.
- 이 보고서는 12월 8일까지 회원국의 서면의견을 받고,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개정하여 IADB와 공동저자로 발간될 예정임(TAD Working Paper).